이안의 Media In Buddha ❷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한줄요약
국내 최대 제빵 업체인 SPC그룹 계열사 평택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슬픈 외침은 현재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는 그의 삶을 담담히 재현한 작품이다.

"노동하며 깨달음 얻은 전태일…수행자 같아"

'빵과 장미'라는 말이 있다. 20세기 초인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도'라는 구호를 들고 행진하면서 비롯된 말이다. 이 두 낱말 안에는 생존권 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가 담겨 있다. 그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21세기가 한참 지나도록 여전히 노동자는 장미는 커녕 자기 몫의 빵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구나 빵을 만드는 노동자는 목숨조차 위태로운 작업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최대의 제빵 업체인 SPC그룹 계열사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초, 동국제강 비정규직이었던 故이동우 노동자가 공장에서 천장 보수작업을 하러 크레인에 올랐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사망했을 때 당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간절한 외침"이라며 "이동우 노동자의 죽임이 헛되지 않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나가는데 사노위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말 뿐이 아니라 동국제강 본사 앞에 분향소에서 이동우 노동자 49재를 봉행하고 이후 매일 유족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하며 힘을 보태 사망 후 88일 만에 비로소 사과를 받기까지 유가족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수많은 일터는 법을 가벼이 여기고 안전수칙을 저버리며 더 많은 이윤만을 위해 사람의 안전과 목숨을 여전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년, 박광수 감독) 〈미싱타는 여자들〉(2020년, 김정영 · 이혁래 감독) 〈태일이〉(2021년, 홍준표 감독)는 전태일에 대해 각각 극영화로,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겨우 22살에 세상을 뜬 청년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여러 편 만들어진 까닭은 아직도 현실이 위태롭기 때문이고, 전태일의 목소리가 사무치기 때문일 것이다.

〈태일이〉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콩트르샹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할 정도로 빼어난 작품이다.

〈태일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방 한 칸도 없어 주인집 툇마루 아래에서 자야 하면서도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꺼워했던 14살 소년 전태일이 어머니가 수제비라도 하루 세 끼를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면서 더 많은 가족을 마음에 품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전태일은 어려운 집안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게 정규 교육의 전부였고, 16살 때부터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시다에서 시작해서, 다음 해 미싱사가 되고 바로 또 재봉사가 되었으니 성실하고, 일도 잘했고, 고용주 눈에도 들었을 것이다.



홍준표 감독의 2021년 작품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의 한 장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 14시간이 넘게 일한 삯이 50원. 딱 커피 한 잔 값이었다. 미싱사가 되고 재단사가 되어 조금 더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지만 전태일은 수돗물로 고픈 배를 채우는 어린 여공들에게 집에 가야할 차비로 풀빵을 사주고 동대문에서 창동까지 먼 길을 걸어가는 마음 고운 청년이었다.

미싱 기계가 다닥다닥 놓여있는 공장 천정 쪽으로 제대로 된 방도 아닌 가설 2층을 만들어 낮에는 아래에서 14시간 넘게 먼지 날리는 봉제 일을 하다 밤에는 바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이불 펴고 눕는 공간이 일터였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여공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폐병 3기 판정을 받은 여공이 가차없이 해고당하는 것을 본 충격으로 이상적인 노동 환경을 꿈꾸기 시작한 전태일은 낮에는 공장에서 옷을 재단하고 밤에는 판자집에서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읽었다. 뜻을 같이할 이들을 모아 '삼동회', '바보회' 등을 조직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힘썼으나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22살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며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1970년 11월 13일 분신했던 전태일 삶의 궤적들 담아내
>
> SPC 노동자 끼임 사고사 등 그의 절규, 현재에서도 통용

〈태일이〉를 만든 홍준표 감독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전태일의 삶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애니메이션이 가진 힘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대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무거운 소재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태일이〉는 가난하고 어렵던 시대, 가장 낮은 곳에서 살던 현장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애니메이션 특유의 자유로운 표현력 덕분에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세상에 대해 품었던 꿈과 희망이 따스하게 담겨있다.

골목의 풍경들, 가난한 가정집, 평화시장 봉제 공장 같은 삶의 현장도 그저 구질구질하고 암담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그림으로 재현되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믿었던 청년의 마음과 눈을 거친 아름다운 화면으로 소환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전태일재단과 공동으로 '전태일 정신과 불교'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라 노동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전태일 열사의 일생에서 대승보살의 자비를 읽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태일의 외침이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의 말씀처럼 혁명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라는 유서의 글귀는 불교의 연기 사상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맹이었던 육조 혜능이 방아찧고 장작 패면서 수행했듯이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삼각산의 공사판에서, 즉 삶의 밑바닥에서 노동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며 전태일의 삶이 수행하는 선사와도 같았다고 돌이켰다.

'전태일 정신과 불교' 토론회에서 '한국불교는 전태일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불교의 화쟁은 투쟁이 아닌 변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최근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노동과 투쟁의 이미지에 가려진 그의 인간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볼 수 있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고통 받는 사람을 구하려 했던 전태일의 헌신성이 새롭게 조명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여전히 공장에서 홀로 일하다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흘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던 소녀 가장이었던 평택 여성 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작업 현장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거의 매일 일어나는 실정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발전 노동자의 죽음으로,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하여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회 본관 앞 단식을 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어렵게 제정되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9월 말까지 446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돌아가셨다. 산업 현장은 여전히 노동자 죽음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안전 문제와 생명에 대하여 타성에 젖어 있음이 분명하다.

회사 현장의 사람들에게 예방과 안전을 외친다고 산재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제품 모든 공정에 노동자의 육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다. 육체의 안전을 제품 생산의 이윤에 앞서서 생각하는 기업이 되지 않고는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제품 생산에 무오류, 무결점을 끊임없이 외치는 회사 방침에 앞서 '노동자들의 육체 안전사고 제로'의 정신을 으뜸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 죽음의 현장을 천막으로 가려놓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SPC의 이윤을 제일로하는 섬뜩함을, 모든 기업들의 경영 자세에서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서는 산재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국가의 책임이요, 부끄러움으로 알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정부는 생명을 외면, 무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존재의 이유를 물을 정도로 가혹하게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주도 본인이나 가족들의 생명만큼 노동자의 생명에 무한 책임과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발원에 마음을 보태며 〈태일이〉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리고 〈미싱타는 여자들〉이 왜 꼭 봐야할 영화인지를 다시금 되새긴다.

〈영화평론가〉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

제10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2년 8월 22일(월) ~ 11월 7일(금)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 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1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